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해림 **학 번** 201812901

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

'식품산업의 이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내용은 HMR 식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식품 시장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식품도 그에 맞추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에 일본여행을 하며 단순히 동기들과 여행을 가는 것이 아 니라 일본의 HMR 식품을 우리나라의 식품과 비교하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사진1)

(사진2)

일본의 편의점은 sns와 같은 입소문을 타고 꼭 방문해야할 관광지처럼 여겨집니다. 이때문인지 편의점을 발견하였을 때 일본어 보다는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사진과 같이 열어서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음식들이 많이 진열 되어있었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통조림 같은 제품들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의 품질도 한 끼 식사로 손색없었습니다. 또자판기의 종류가 다양하였는데 음료뿐만 아니라 담배, 술, 아이스크림 등 종류가 굉장히많고 가격대도 적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류들의 자판기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4)





(사진5) (사진6)

다음은 '벨류 마트'라는 대마도에서 유명한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마트는 편의점 보다 좀더 광범위한 식품들을 팔았는데 정말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종류가 굉장하였습니다. 감자튀김부터 만두, 튀김, 육류, 밥 등을 냉동식품으로 팔았고, RTE, RTH 식품들이 신선식품의 배치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두 곳 다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HMR식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 상품, 빵, 과자 등의 상품이 많이 있었고, 하나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은 과대포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좋은 질과 양을 가진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과대포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만 조금 더 개선한다면 해외보다 더 좋은 맛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밥을 먹으러 가는 동안 SNS에서 보았던 음식점들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SNS에서 찾아 음식점을 간 것이기 때문에 SNS의 중요성 또한 몸소 체감하며 SNS를 통한 식품산업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떠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여행을 하면서 그냥 풍경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를 보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마도를 여행하면서 현지 사람들을 관찰 했었는데 다들 어느 정도 한국말을 사용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으셨습니다. 한국관광지로 유명한 만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며 어느 분야이든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져야 성공을 할 수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하나 정해두고 갔을 뿐인데 그 분야에 집중하며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갈 때에도 무언가하나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여행을 가다보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돈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 학기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